



# 군종주보

2017년 11월 26일(제851호) 그리스도 왕 대축일(상시 주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한 해를 마무리하며

+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의 마지막 주간이자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이들을 그 행실대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다른 이들, 그중 가장 작은이들에게 어떻게 해 주었는가'입니다.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서는 그 작은이들에게 해 준 것이 자신에게 해 준 것이며, 그들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유사한 복음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9-37), 혹은 되돌려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라는 주님의 가르침들(루카 14, 12-14)이 복음서 전반에 나타납니다. 그 결론은 모두, 내가 작은이들이라고 멸시받는 이들과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해 준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마태 6,4)하신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다른 이들을 대하여 하는지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 직은 봉사의 직무입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10,25-26) 결국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도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주님과 함께 가리라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을 오늘 해 주십니다.

전례력으로 마무리되어가는 한 해를 보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섬기는 모습이었는지, 섬김을 받는 모습이었는지. 작고 보잘것 없는 이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 무언가를 해 드린 적이 많았는지, 그렇지 못한 적이 많았는지. 이러한 반성을 통해 우리도 주님의 왕 직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인(그레고리오) 신부  
신신대(해군 직진시령부) 상당 주임

**제 1 특 시** 예제 34,11-12.15-17

**회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특 시** 1코린 15,20-26.2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야! ◎

**복 음** 마태 25,31-46

**영 성 제 송**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진리를 살다

## 1. 평화의 예식

주님의 몸인 성체를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한 준비 예식 가운데에는 주님의 기도뿐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평화의 예식도 있습니다. 평화의 예식 또한 하나의 기도와 동작을 가지는 의식으로, 성체를 모시기 위한 직접적인 준비 예식에 속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제단에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앞서야 한다(마태 5,23이하)고 분명히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 전례에는 예부터 평화 예식을 말씀의 전례를 마무리하는 보편 지향 기도 이후 그러니까 성찬 전례를 시작하기 전에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서방 전례는 주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 전에 평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웃과의 평화는 주님을 받아 모시는 전제 조건임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기도 예식이 끝나면 사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로 시작하는 평화의 기도를 바친 다음, 교우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라고 평화의 인사를 한 후 교우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라고 권합니다. 이러한 평화 기도, 평화 인사, 평화 표시를 합하여 평화 예식이라고 합니다.

## 평화의 예식

여기서는 평화의 표시에 대해서만 살펴봅니다. 사제 또는 부제가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고 권하면 교우들은 서로 묵례(默禮)나 악수 등으로 인사를 나누며 평화를 기원합니다. 초세기에는 이때 교우들이 사랑과 화해를 주고 받는 표시로 서로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명칭도 “평화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 평화의 입맞춤은 아주 오래 전 전례적 표시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미있는 증거가 있어 소개 해봅니다. 초세기의 교부 히폴리토(215년경)는 저서 《사도 전승》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신자들은 서로 인사하는데, 남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여자들은 여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남자들은 여자들과 (평화의) 인사를 해서 안 된다.” (18장) 이 지시는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초세기에는 실제로 평화의 입맞춤을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친척들 간의 입맞춤이 애정의 표시일 뿐 아니라 존경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표시가 곧 양식화되어 포용의 뜻만 남게 되었습니다.

최정덕 F.히비에르 / 대구교리신학원 원장  
『대구대교구 ‘빛’ 잡지 발췌』

###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상관없어, 쉽지 않아도

쉽지 않을 거야.  
만만치 않을 거야.

그래.  
그렇겠지.  
그런데, 상관없어.

나 혼자가 아니야.

내가 선택해,  
출발한 길이  
쉽지 않다 해도.

내 임과 함께니까,  
상관없어.

그냥 가는 거야.  
좋은 때가  
더 많을 거야.

상화이야기

살바토르 문디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는 라틴어를 그대로 표기한 것으로,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이다. 본 그림을 주제로 한 이콘은 거의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의 반신상을 그린 그림으로, 오른손은 들어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왼손에는 동그란 구(그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다)를 들고 계시는 장면으로, 동그란 구는 투명한 유리 구 혹은 불투명한 물질의 구이거나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되고는 하였다.

여기선 왼손의 동그란 구는 지구, 혹은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데, 왼손에 구를 들고 계심으로써, 전 세계의 구원자이시자 동시에 심판자를 상징하기도 한다.

맷시스의 살바토르 문디는 조금 특이한편인데, 예수님의 왼편에 들려진 동그란 구는 유리 구처럼 생겼고, 그 안에 지상의 풍경으로 보이는 것처럼 산과 들, 도시, 바다, 해와 달이 모두 그려져 있다. 동그란 구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지상의 일을 한눈에 들여다보는 것 같은 묘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구를 둘러싼 금색의 띠가 교차하는 중앙 윗부분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망토를 여미고 있는 장신구에는 하단 왼편에서 이브를 창조하시는 하느님과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오른편), 상단에는 천사들에 둘러싸이신 성모자(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으나)가 그려져 있다.

퀸텐 맷시스(1466-1530)  
1520년대 作,  
나무 위 유화 72.9 X 50.2 cm  
그로스베니 미술관, 영국 체스터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그리스도 왕 대축일: 태극 김도훈 신부

◆ 교구장 동정

- 결전(20사단) 성당 사목방문  
    때: 11월 26일(주일)
- 준·부사관 격려방문  
    때·곳: 11월 29일(수) 18:00, 육군 부사관학교

◆ 군신교단 수련회

- 때: 11월 29일(수)-30일(목)
- 곳: 고성, 까리따스 피정의 집

“군(軍) 복음화, 새 열정으로”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